



원로의 대담

식물분류학의 대가 李永魯 박사

대담 / 李光榮 <한국일보 부국장 / 과학평론가>

식물학 외길 ... 「원색한국식물도감」 3월 출간

한국식물상(植物相) · 한국식물의 세포분류 · 한국화본(禾本)과 식물분야의 연구에서 세계 각국 식물상의 화기형(花期型) 연구에 혁혁한 업적을 남긴 李永魯(76)박사는 요즘 『원색한국식물도감』 출간을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에 여념이 없다.

이박사는 1986년 31년간 봉직해왔던 이화여대 생물과 교수직에서 정년으로 물러났다. 이박사에게서 정년은 새로운 도전과 한단계 높은 차원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자유롭게 전국의 명산과 백두산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의 유명한 산과 들을 두루 다니며 갖가지 식물을 관찰, 채집하는가 하면 꽃을 사진에 담는 재미를 한껏 누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시간이 없어 미뤄둔 각종 자료를 정리해서 책을 속속 엮어냄으로써 평생을 바쳐온 그의 산지식들을 후세에 전해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선생님의 성장과정과 식물학을 전공하시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920년 지금은 군산(群山)시에 편입됐지만 당시 전북 옥구(沃溝)군 개정(開井)면 하동(河東)리에서 태어났습니다.

沃溝 한학자 집안 출신

부모님(李興白·李姓女)은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농사일을 하셨는데 선친은 고을에서 알아주는 한 학자셨습니다. 5남매중 4남으로 자라 4년간을 집 가까이 있는 개정국교를 다니다 5학년때 10리쯤 떨어져 있는 대야국교로 옮겨 졸업을 했지요. 그후 전주사범 심상(尋常)과를 나와(1942년) 안성(安城)과 안천(顔川)국민학교를 거쳐 전북여자중학교 생물교사로 있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생물 특히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주사범 1학년때의 일입니다. 과제물로 받은 식물관찰도 작성에서 우수작으로 뽑혀 식물학자인 무라카미(村上) 선생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지요. 무라카미선생님은 내가 그린 7장의 식물관찰도를 게시판에 전시해서 전교생이 알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식물인생을 견게 된 동기입니다. 무라카미선생님은 동경고사(東京高師) 출신으로 그때 이미 염색체를 다룰 정도로 실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올해 91세로 생존해 계시는데 지금까지 서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 전주사범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1학년때부터 짬만 나면 전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식물채집을 했습니다. 이무렵 전주사범 부속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최기철(崔基哲·전 서울대교수)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박사는 당시 한국사람으로는 동물문검(動物文檢)에 합격한 단 한분이셨습니다.

식물문검엔 백만기(白萬基·전 고대교수·작고)박사가 또 한분계셨습니다. 무라가미선생님이 식물문검을 준비하고 계시던 최박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박사는 매 토요일과 일요일 함께 식물채집을 나갔는데 경험이 풍부해서 채집의 요령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박사는 3학년때 전주사범으로 옮겨 가셨지만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이 있어 중매까지 해주셔서 지금의 아내(張靜遠·73)와 1948년 결혼했습니다.

6·25때까지 경기중 교사로

식물채집을 열심히 하다보니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할 무렵에는 전주 일대의 거의 모든 식물을 채집하고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지요. 이로써 당시 경성대학 모리다(森爲三)교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식물분류학의 태두 정대현(鄭台鉉·전 성대교수·작고)박사와 수원농고의 수목학자 우에기(植木秀幹)교수 등과도 교분을 갖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해방이 된 후 곧 서울로 올라와 남산에 있던 과학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 과학관엔 석주명(石宙明·나비)·조복성(趙福成·곤충)·이



▲ 이영로박사(右)는 한국산 꽃을 비롯해서 세계 50개국에 대한 화기형(花期型)을 완성하여 영문판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얘기한다.

민재(李敏載·광석)·석주선(石宙善·복식)씨 등이 계셨습니다. 석주명씨는 배추벌레의 흰나비 1만마리를 채집, 이를 날개무늬의 크기로 분류해서 개체별 곡선을 만든 세계적인 학자였습니다. 1946년 오대산과 태백산에 대한 학술답사때 나는 식물분야, 석주명씨는 동물분야의 책임자로 일을 했지요.

그후 경동중학을 거쳐 47년 경기중학 생물선생으로 6.25때까지 있었습니다. 독도(47년)와 다도해(48년)학술답사에도 반장으로 참가해서 많은 식물채집을 했습니다. 이홍구(李洪九·전 국무총리)·공로명(孔魯明·외무부장관)·조순(趙淳·서울시장)·이회창(李會昌·전 국무총리)·이상복(李尙馥·서울대 의대교수)·함병춘(咸秉春·전 주미대사)·이재설(李載高·전 농수산부장관)·한승헌(韓勝憲·변호사) 등이 경기중학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6.25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1.4후퇴 때는 부산으로 피난가 잠시 전시종합대학 강사(51년)로 있었습니다. 그후 마산고 생물선생으로 있으면서 마산 인근 지역의 식물을 조사해서 마산식물지(馬山植物誌·52년)를 펴냈고, 한산도(閑

山島)식물상과 진지도(眞支島)식물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생물교사시험에 응시해서 제1호로 자격증(52년 11월)을 획득했습니다. 학술활동을 하면서 학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기때문에 1953년 서울대 사범대 생물과 3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이같은 결단을 하게 된다는 최기철 박사의 도움이 컸습니다.

서울대 졸업논문은 『한국

산 마늘의 분류학적 연구』였어요. 당시 식물분류학의 대기는 일본 동대의 가와 후미오(前川文夫)교수였는데 그는 마늘을 중국에서 왔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연구결과 마늘의 원산지는 유럽이었고 2000년전 중국의 장건(張騫)이 유럽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식물분류학의 태두 린네교수가 이미 오래전에 마늘을 분류해 놓은 것을 찾아내 가와후미오의 분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혔지요. 지금 생각해도 통쾌한 일이었어요.

서울대 사대 생물과를 졸업(55년)한 후 곧 우인근(禹麟根·천연물화학)박사의 도움으로 서울대 생약연구소 식물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채집한 식물표본이 지금도 연구소에 있어요.

■ 이대와 인연을 맺은 것은 언제부터였는지요.

東京大서 의새연구로 박사학위

1955년 서울대 생약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대 약대에 강사로 나갔습니다. 다음해 모교인 서울대 사대에서 조교로 남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대 약대에서 경력을 인정해서 조교수로 임명하겠다는 제의를 받

아 이대와 정식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이대 약대시절 약용식물을 가르치며 식물채집을 위해 전국을 누볐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문적인 소양을 더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한층 솟구쳤어요. 그래서 1960년 미국 중부의 캔사스주립 대학에서 벼(禾本)과 식물연구로 1년만에 이학석사학위를 땀어요.

석사학위 논문은 화분과 식물의 표피향을 현미경으로 보아 이를 토대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 당시로서는 최신학문이었어요. 그리고 동부의 예일대학에서 식물분류학을 공부한후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연구소에서 1년간 식물분야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록키산맥 일대와 그랜드 캐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남·북 다코다, 와이오밍 스테이크지역, 뉴잉글랜드 등지를 여행하며 식물채집을 열심히 했습니다.

식물채집 10만종...논문 1백여편

그리고 1964년 일본 동경(東京)대학 이학부 식물학과 하라히로시(原寛)교수 밑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역새속식물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까지 분류가 되지 않았던 세계의 역새속식물에 대해 계통을 밝힌 것이었는데 학회지에 5회에 걸쳐 대서특필되었지요. 이 논문으로 해서 1970년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왕립식물원 학자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 귀국후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람있었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1964년 귀국해서 먼저 착수한 것은 한국의 화분과 식물에 대한 영문판을

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것이 외국에 알려지려면 영문판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리고 청년때까지 주로 한국식물의 세포분류학적 연구에 힘을 쏟았어요. 그중에서도 한국산 구절초 무리의 세포분류학적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69년 미국 시애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국제식물학회에서 발표, 호평을 받은 것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후 염색체를 이용해서 2백50여가지의 한국산 식물에 대해 계통을 밝히는 연구를 완성했지요.

1970년 덴마크의 코펜하겐대학 초청으로 6개월동안 연구교수로 있었는데 이때 세계 각국의 식물상에 대해 화기형(花期型)을 연구하여 덴마크의 지리학회지에 발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월에서 12월에 걸쳐 온도와 우량에 따라 어떤 꽃이 얼마큼 피게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새로운 연구영역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식물의 채집과 관찰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전국의 산과 들은 가보지 않은 곳이 거의 없고 세계 방방곡곡을 두루 여행하며 많은 식물을 채집했지요. 중요한 식물채집만도 10만종이 넘은 것입니다. 그러는동안 논문이 1백여편에 이르렀고 변종과 신종도 50여종이나 발견하는 성과도 올렸지요.

■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일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한국의 고산식물』 출간계획

오는 3월 출간될 『원색한국식물도감』은 대판 1천3백쪽짜리로 여기엔 꽃피는 식물만 3천6백가지가 생생한 컬러사진을 곁들여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

재 4천여종의 한국산 꽃을 비롯해서 세계 50개국에 대한 화기형을 완성, 가능한 빨리 영문판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요즘은 사진작가들과 같이 명산을 찾아 다니며 갖가지 꽃을 사진에 담아 이를 출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꽃』은 1994년 출간됐고, 『한라산의 꽃』은 오는 3월 출간될 예정이며, 『백두산의 꽃』에 대한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 『한국의 고산식물』을 펴낼 계획입니다.

■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한 우물 파야

무엇이든지 한 우물을 파라는 것입니다. 학문의 세계는 너무 넓고 깊어서 한 우물을 파도 좋은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외길인생을 걸으란 이야기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식물 이외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자네는 식물 말고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식물인생 외길을 걸은 것에 대해 무척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로박사는 한국식물학회(72~74년), 한국식물분류학회(76~80년, 83~85년), 한국닌협회(86~92년) 등을 역임했다. 이 박사는 요즘도 한라산과 지리산의 정상을 거뜬히 오르내린다. 아직은 여행과 산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이박사는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요즘도 옛날과 다름 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표정을 본다든지 책을 보다가 졸음이 오면 잠시 눈을 붙인다. 그리고 7시30분께 간단한 아침식사를 하고 12시경 헬스클럽에 나가 30분정도 운동을 한다. 서예를 하는 부인 장정원여사 사이에 3남을 두고 있다. ⑦